

접목선인장, 코로나19 뚫고 세계로

농진청, 지난 3월 수출 중단 이후 미국이 완화하면서 4월 말부터 재개 8월 말 기준 지난해 90% 수준까지 회복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화훼 수출 품목인 '접목선인장' 수출이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접목선인장은 삼각주 선인장 위에 색이 화려한 비모란 선인장을 접붙여 만든 품종이다.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부터는 순수 국산 품종이 수출되고 있다.

2019년에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 16개 나라에 406만 3,000 달러(약 48억 원)를 수출했지만, 올해 3월부터 시작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각 나라의 수출 중단 조치로 현지 수요가 마비되고 항공 수송이 어려워져 수출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주력 시장인 미국이 수출 중단 조치를

완화하면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다시 시작돼, 8월 말 기준 지난해 90%(금액 기준)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접목선인장 품종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다양하면서도 선명한 색상 덕분이다. 빨강, 노랑, 주황, 분홍 등 뚜렷한 색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작은 화분(소형 분화) 상품으로 해외 소비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1980년대 말부터 접목선인장 품종을 육성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21품종을 개발해 국내 농가에 보급했다. 진한 붉은색의 '구홍', '빨빛', '아홍'을 비롯해 노란색 '아황', 분홍색 '연빛', 황색색(누런 적색) '두울', '아울' 등이 수출 주력 품종으로 활약 중이다.



접목선인장 온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현재 국산 접목선인장 국내 품종 보급률은 100%이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이른다. 지난 30년간 누적 수출액은 8,142억9,000 달러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원희 화훼과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빠

른 수출 재개는 국산 품종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호의적인 반응 덕분"이라며, "해외 시장 요구에 맞춰 다양한 구색과 수송성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지속적인 수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9월 전북 고용률 '선방'

코로나19 상황 속 61.2%로 전년대비 1.4%p 상승 취업자 95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7000명 ↑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지난 달 전북지역의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0년 9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고용률은 61.2%로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하고 취업자는 95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7,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2만 4,000명(7.5%), 농림어업분야에서 1만1,000명(6.2%)이 증가해 취업률 상승을 주도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건설업 6,000명(-7.1%), 도소매·숙박업 1만1,000명(-6.6%), 전기·통신·금융업 2,000명(-2.3%) 등이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 1만

5,000명(10.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만1,000명(6.3%), 사무종사자 4,000명(3.3%) 등은 증가했으나, 서비스·판매종사자 6,000명(-3.2%), 기능·기계조작 및 조립·단순노무종사자 6,000명(-1.9%) 등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4,000명(0.6%) 증가한 60만9,000명으로, 이 중 상용근로자는 8,000명(2.1%), 임시근로자는 9,000명(6.7%)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만3,000명(-20.8%)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1%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0% 증가했다.

그 밖에 지난달 전북도 실업자는 2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2.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했다. /김윤상 기자

국토부 '광역교통 2030' 총사업비 수도권에 집중

127조1192억 중 97조3천여억 광역시 없는 전북 등은 '0원'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 수도권에 쏠려있어 균형적 예산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에 따르면 광역교통 2030 총 사업비 127조1,192억 중 76.5%인 97조3,386억이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도시의 총사업비는 29조7,806억원으로 지역별로 나눠보면 부산·울산이 14조9,252억으로 지방대도시 중 가장 많았고 대전이 6조3,799억, 광주 5조4,243억, 대구 3조3,932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아 배정된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택지개발에 이어 교통까지 수도권에 수십조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교통이 낙후된 지방도시에 더 많은 교통사업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예산을 한푼도 못 받고 있어 광역교통법에 전북, 충북, 강원, 제주도 포함시켜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30년 방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존폐 위기'

2016년 가입 30만9000좌에서 5년동안 가입계좌수 급감 민주 이원택 의원 '농가 니즈에 맞는 가입제도 현실화 시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이 존폐 위기에 몰려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의 가입계좌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현황을 보면 2016년 30만9,000좌에 잔액 9,750억원, 2017년 28만8,000좌에 9,327억원, 2018년 26만9,000좌에 9,259억원으로 가입좌수와 잔액이 지속적으로 줄어 들었다.

2019년 이후 소폭 상승해 올해 8월말 현재 26만4,000좌에 잔액 1조원 수준

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입좌수가 2016년 대비 2020년 8월까지 4만5,000좌 감소해 15% 줄어 들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금리는 2020년 현재 기본금리 2.72%에 잔액잔액 3년 만기 0.9%, 5년 만기 1.50%를 적용한다.

그러나 가입한도가 연간 240만원으로 3년 만기시 760만원, 5년만기시 1,31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농어민의 실질적인 재산형성을 위한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준지평가에서 낮은 연간저축한도로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돼 전면적인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고

2019년에는 목적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돼 폐지 권고를 받은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이 폐지 권고를 받을 만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단기 저축 상품을 선호하는 고령자와 저소득 농가의 니즈에 맞게 만기를 다양화하고 가입한도의 현실화, 이월 인상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농어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 제고를 위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 상품으로 1976년 농어촌지역의 중소농어민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도입돼 198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호상 기자

로컬푸드 출하가능 대상 비대면 농투버 기초과정 개설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생산자가 곧 브랜드인 로컬푸드 출하능가를 위한 비대면 농투버 기초과정을 개설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누구나 핸드폰으로 손쉽게 동영상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이번 과정은 최근 농업분야 유튜브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투버 수요가 증가되고 코로나19시대 온택트 마케팅이 확산됨에 따라 마련됐다.

로컬푸드 출하능가는 유튜브 채널 '전북농협 로컬푸드'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탭할 시 사용, 편집요령 등의 내용을 동영상 시청으로 배울 수 있으며, 동영상 제작 중 궁금증이 발생하면 유튜브에 댓글로 남기면 응답해 준다.

전북농협은 이번 과정에 진행사항을 살펴본 후 향후에는 비대면 농가교육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6일 오후 2차로 백년가게에 선정된 전북지역 4곳 중 1차로 군산에 위치한 국내 최장수 빵집인 '이성당'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내 최장수 빵집 '백년가게 됐다'

전북중기청, 군산 '이성당'에서 현판식

국내 최장수 빵집인 군산의 '이성당'에 백년가게 현판이 걸렸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지난 16일 오후 2차로 백년가게에 선정된 전북지역 4곳 중 1차로 군산에 위치한 국내 최장수 빵집인 '이성당'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중기청을 비롯한 군산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백년가게 현판 제막식 및 인증 확인서를 전달하고 업체대표와 경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1945년 창업한 '이성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으로 다양한 고객의 입맛에 맞춘 전통적인 '단팥빵'과 '아재빵'을 독자 개발하는 등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75년 전통의 빵집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은 군산의 명소가 됐다. 2006년부터 쌀을 원재료로 한

빵을 개발하는 등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 농가와 상생하고, 전파·온라인 주문 도입 등 고객의 수요에 맞춘 경영 혁신을 지속해 군산을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군산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이성당 김현주 대표는 "그간 고객의 입맛에 맞는 빵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보람을 느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남우 청장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업체가 백년가게로 선정됨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백년가게 지역협의회와 소상공인 프 로보노단을 활성화하여 백년가게의 성공노하우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도내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

오늘까지 익산 모현 이지움 26일까지 완주 삼봉 우미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공급예정은 '익산 모현 이지움'과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에코포레'로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각각 6세대(확정추천 5세대 + 예비추천 1세대)와 28세대(확정추천 19세대 + 예비추천 9세대)다.

'익산 모현 이지움'은 주식회사 금동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북 익산시 모현동 660-5번지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신청기한은 19일 오후 6시까지다.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에코포레'는 주식회사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677(완주 삼봉지구 B-1블록)에 건설할 예정이며, 신청기한은 26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방법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조정평가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협약서를 들고있는 조성완 사장(사진 왼쪽)과 정한근 원장.

응급의료센터 안전점검 협력

전기안전공사-방송통신전파진흥원, 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지난 15일, 응급의료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범람에 따라 비대면으로 처리된 이날 협약식에서 양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호 기술력 향상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센터 전파·전기 합동점검 ▲전기 설비 및 전자파 상시노출 직업군에 대한 전자파강도 측정협력 ▲전기·전파 기술자 및 취득교육 업무협력 ▲전파·전기 검사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협력

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응급의료시설 안전점검서비스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공사에서는 ▲비상발전기 확인 ▲전기설비 적외선열화상 점검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무선설비의 주파수, 출력 등 성능점검 ▲병내내 전파영역지역 컨설팅을 제공한다.

조성완 사장은 "응급의료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국민 안전과 권익향상에 이바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심의기간 30일 이내 의결 결과 7일 이내 통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규제 완화... 오늘부터 시행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에서는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모든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바다면적 합계 5,000㎡ 이상으로 변경하고 공장·창고·발전시설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접수 후 45일 걸렸던 심의기간을 30일 이내 의결하고 의결 후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도록 변경(8일 단축)해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아울러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검토 의결', '부결' 등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는 법령위반, 설계 오류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만 가능하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건축 심의대상 완화에 따라 건축주 및 사업자의 비용절감(건별 1,000만원 정도)은 물론 설계도 작성 및 행정절차 등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3~4개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의 핵심사업인 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발전시설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유수면 기술 지원심의,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건축심의 생략으로 기간이 단축돼 보다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양충모 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새만금에 더 많이 투자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